

# 淸狂子 朴士亨의 「南草歌」 연구

- 작가의 창작배경과 그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 귀 석 (동신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南草歌의 문학적 의미 |
| 2. 南草歌의 창작배경과 그 지향성    | 4. 맺는 말        |
| 1) 작가와 南草              |                |
| 2) 무병장수한 삶을 통한 理想世界 구현 |                |

## 국문초록

박사형의 「南草歌」는 조선시대 南草(담배)를 소재로 한 가사로는 그 최초의 작품이다. 담배리는 일상적 사물을 문학적 소재로 삼아 뛰어난 가사작품으로 형상화시킨 그의 예술적 정감이 돋보인 작품이다. 또한 작가는 남초가를 통해 자신이 살아 온 삶의 고뇌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작품의 내용이 곧 작가의 현실이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신문물로 여겨졌던 남초(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靈藥, 活命草임을 증명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박사형의 南草歌는 단순한 담배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남초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삶을 얻게 된 작가의 실제적, 실증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 작품이 갖는 현실적 의미는 크다. 또한 작가는 남초를 통해 이상향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곧 신선세계가 아닌 충효의 유교적 현실을 바탕으로 무병장수한 인

간의 삶, 생명 존중의 인간세계를 南草歌에서 구현하고 있는 데서 작가의 이상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南草, 문학적 소재, 예술적 정취, 실증적 체험, 이상향

## 1. 머리말

남초가(南草歌)는 현종 7년(1666)에 淸狂子 朴士亨이 그의 나이 32세때 지은 가사이다. 박사형의 유고집인 『淸狂集』에 필사본으로 실려 있는 이 작품은 1971년 정익섭<sup>1)</sup>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총 88句 606字의 국한문혼용체로 이루어진 남초가는 담배를 소재로 한 가사로는 그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朴士亨(1635~1706)은 자는 瑞翁, 호는 淸狂子이며 인조 13년(1636)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평생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林泉에서 山水와 詩賦를 즐기며 학문과 후진양성에 전념한 조선중기 보성의 대표적 유학자이다.<sup>2)</sup> 그의 가사 南草歌는 조선에 담배가 들어온 지 약 50여년 만에 지어진 작품으로 왜래 문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당시 사람들의 기호품으로서 담배를 예찬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 작자 박사형의 진솔한 그리고 절실한 운명적인 삶이 담긴 노래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특히 주목된다. 또한 일상적 사물에 불과한 담배를 소재로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돋보인 작가의 문

1) 정익섭, 「淸狂子 朴士亨의 南草歌攷」,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년논총』, 호서문화사, 1971, 297~330쪽.

2) 박사형, 『淸狂集』, 『家狀』, 보성문화원, 2004, 81면. “南州(南道)의 大儒라 불리어졌으며, 부임하는 태수와 수많은 유림들이 그가 거처하는 岩隱堂을 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으며 박사형과 그 문하의 성대한 학풍은 마치 노나라때 孔子의 문하생들과 같은 유풍을 이루었다(太守之下車者必先問公之厥居浚郊干施絡繹稱之以南州大儒一鄉人士莫不踪門薰陶蔚然有洙泗之遺風).”

학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박사형 문학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적 장점,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南草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편이다. 지금까지 박사형의「南草歌」에 대한 연구로는 정익섭이 「淸狂子 朴士亨의 南草歌攷」(1971)에서 처음으로 남초가를 소개 발표하였으며, 김정석은「歌辭의 素材의 特異性에 대한 一考察」(2003)에서 소재적인 측면에서의 남초가의 특이성을 살폈다. 김귀석은「청광자 박사형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2010)에서 『淸狂集』의 시문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을 살폈다. 이처럼 박사형의「南草歌」는 그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이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작자 역시 향촌의 유학자로서 크게 인식하지 못한 바가 크다 하겠다. 본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南草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문집인『淸狂集』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南草歌」를 살필 것이다. 이는 남초가가 작자가 처했던 현실에 대한 경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사형이 이 작품에서 일개 사물에 불과했던 南草를 왜 그렇게 극찬하였는지, 또 그렇게 절실하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南草歌」에서 작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그 창작 배경과 함께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갖는 문학적 의미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 2. 南草歌의 작품배경과 그 지향성

「南草歌」는 광해군 시대에 신문물로 들어 온 담배의 효험을 경험하고 박사형이 이를 소재로 지은 가사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담배에 대한 예찬의 차원을 넘어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즉 작가가 소망하는 세계를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작가와 당시 기호품으로 여겨진 남초에 관련한 사실을 그의 문집인 『淸光集』의 기록과「南草歌」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작가와 남초

박사형은 그의 나이 24세 때인 무술년(1658년) 한해에 부모를 비롯 아내, 형, 조모가 당시 여학(厲瘡)으로 인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참화를 겪게 되었다.<sup>3)</sup> 하늘을 원망하며 다섯 가족의 장례를 각각 치르고 성심을 다하여 祭禮를 끝내고 상복을 벗으니 그 사이 남아 있던 전답과 집이 경비로 모두 사라져 버렸다. 가산까지 잃은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시국 또한 2년에 걸친 가뭄과 흉년으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그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 급기야 난치병까지 얻게 되었다. 결국 병의 치료를 위해 28세 되던 해인 임인년(1662)에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게 된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치며 다섯 식구 사망에 통곡을 하고 다섯명 장례식을 계획 세 다 치르고 나니 집 전답이 다 없어져 버렸다. 또 기해년(1659) 國喪을 당하여 삼년을 부모상처럼 애통 속에 지내왔다. 강한 서리와 쓰라린 가뭄으로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壬寅年의 참상이 癸卯年과 庚戌年까지 배가 고파 부르짖어 울었다. 기구한 빈곤펀기 인생 만 번 죽음에서 벗어나고 병이 들어 또 난치병으로 형체는 날로 쇠퇴해지도다. 醫人은 폐병이라 말하고 짐쟁이는 곳을 하고 주문을 읽으라 하며 유랑자처럼 격리하여 살고 인해서 나가 피하라 하였다.”<sup>4)</sup>

이처럼 박사형은 득병 후 그 치유를 위해 10여간 유랑생활을 하였었다. 그러나 여러 약초를 복용하는 등 그 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

3) 앞의 책, ‘再上方伯書’, 146면. “무술년(1658)에 여학(厲瘡 : 문둥병)으로 온 가족이 섬멸당하고 화(禍)를 입었는데 여기에서 아버님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그날 밤 형이 사망하였으며, 당일 아침에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늘은 화(禍)를 누우치지 않고 또 조모마저 계속 서거하심으로 열흘 동안에 다섯 명의 상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참혹함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戊戌之年而厲瘡終焉 懺族之禍父亡於斯母歿於斯兄亡昨夜妻死今朝而天不悔禍祖母繼逝則一句五喪言之慘矣).”

4) 앞의 책, ‘述懷呈李相公師命’, 232면. “呼天叫地慟 五喪五葬 經營田宅匱 已尤之歲 虛 國恤慟悼 三年如考妣 庚霜辛旱 繼以饑壬寅年 慘呼庚癸崎嶇 殘殺出萬死病且膏 育形日瘵 醫云瘵疾卜言 吮蕩析離居因出避.”

였으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平生에 病이 있어 온갖 풀을 다 맛보니  
人蔘蒼朮 遠志菖蒲 香藥方에 하였거늘  
三年을 長服한들 七年病을 말길소나.”<sup>5)</sup>

그러던 중 박사형은 南方에서 나온 南草가 靈異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구하여 재배를 하게 된다. 남초는 광해군 시대에 유입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래(東萊) 왜관(倭館)에 화재가 발생하여 80칸을 모두 태웠다. 임술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왜인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므로 떨어진 담뱃물로 화재가 일어난 듯하다.”<sup>6)</sup>

또 조선 말기의 문신 李裕元은 고종8년(1871)에 자신의 隨錄類를 모아 엮은 『林下筆記』에서 담배가 들어 온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남쪽 오랑캐의 나라에 담과고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담질(痰疾)을 앓다가 남령초(南靈草 담배)를 먹고 병이 낫자 이에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광해군(光海君) 임술년(1622, 광해군14)에 왜국(倭國)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장유(張維)가 이를 흡입하기를 가장 즐겨하였으므로 그의 장인 김상용(金尙容)이 임금에게 건의하여 이 요망한 풀을 금하도록 청하였다. 그 뒤에 심인(潘人)들이 이를 재배하여 은밀히 팔았다고 한다. 일설에는 원(元)나라 때에 담화선(踏花仙)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무덤 위에 난 풀이 사람을 즐겁게 하였으므로 더러 이것을 담화귀(踏花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sup>7)</sup>

5) 앞의 책, 「南草歌」, 268면.

6) 「광해군일기」, 광해 15년 2월 15일, “癸亥二月十五日乙亥東萊 倭館火, 燒盡八十間 壬戌亦大火 蓋因倭人喜服南草, 遺落餘燼所致也.”

7) 李裕元, ‘淡婆姑’, 『文獻指掌編』, 『林下筆記』, 제13권 . “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 服南靈草 得療故名之 光海壬戌 自倭國出 長襦最嗜吸 丈人金尙容白上 請禁妖草 後潘人自苻潛賣一說 元時有妓踏花仙者 塚上草生 使人悅之 或名踏花鬼.”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남초가 광해군 14년(1622)에 일본을 통해 들어와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널리 사용되었으며 또한 어느 정도 질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sup> 10년 숙환에 百藥이 無效했던 작자는 절망적 상황에서 남초에 대해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된 것이다. 그가 남초 재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인 것도 남초가 그의 생명을 구할 靈草라 여겼기 때문이다.

“南方서 나온 풀이 靈異하다 有名커늘  
 花階를 종이 쓸고 藥欄을 높이비겨  
 梅花雨 갓 갓 後에 花草조차 섞어 심어  
 薰風에 자라 내어 甘露를 맞혔더니  
 翠鳳의 나래같이 푸르고 푸른 잎을  
 黃鶴의 나래같이 누렇게 키워 내어”<sup>9)</sup>

南方서 들어 온 靈異한 남초를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심었다. 5월의 따뜻한 봄바람 속에 장생불사한다는 감로(甘露)와 같은 새벽이슬을 잘 맞게 하였더니 어느새 취봉(翠鳳)의 날개처럼 푸르고 넓은 잎사귀로 자라났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키워낸 남초가 이제 황학(黃鶴)의 날개 모양 크고 누렇게 익은 완전한 담배 잎으로 자란 것이다. 박사형은 남초의 재배과정을 묘사하면서 남초의 잎을 취봉(翠鳳)과 황학(黃鶴)의 날개에 비유하여 남초가 그만큼 상스럽고 가치 있는 사물임을 표현하고 있다.

8) 張維, ‘南靈草吸煙’ 『谿谷漫筆』, 1권 “남령초(南靈草 담배)를 흡연(吸煙)하는 법은 본래 일본(日本)에서 나왔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담박괴(淡泊塊)라고 하면서, 이 풀의 원산지가 남양(南洋)의 제국(諸國)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물건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가마꾼과 초동목수(樵童牧豎)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이다.(南靈草吸煙之法 本出日本 日本人謂之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 今則上自公卿下至輿臺蕘牧 無不服之).

9) 『남초가』, 268면.

“먹던 차 물리치고 試驗하야 맛을 보니  
 燻燻한 내 한줄기 喉舌에 갓넘으며  
 온온한 기운이 腸腑에 가득하니  
 從前 쌓인 痰이 한 때에 다 내리네  
 宿病이 다 調和하니 또 한 興을 이라리라.”<sup>10)</sup>

이 대목은 직접 재배한 남초를 흡연하는 장면인데 10년 宿病에 시달린 작자가 담배를 통해 그 숙환을 완전히 치유하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李晬光은 광해군 6년(1614)에 편찬한『芝蜂類說』에서 남초의 흡연 방법과 남초의 효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淡婆姑는 풀이름이다. 또 이것은 南靈草라고도 한다. 近歲에 와 倭國에서 나는데 잎을 따서 바삭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 病人이 竹筒으로 그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곧 도로 내뿜는다. 그 연기는 콧구멍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痰과 습기를 잘 없애고 氣를 내리며 또 술을 깨게 한다.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심어 그 법을 쓰고 있는데 매우 효험이 있다. 그러나 毒도 있으니 경솔히 쓰지 말아야 한다. 혹은 전하기를 南蠻國에 淡婆姑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해 동안 痰疾을 앓았는데 이 풀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이름 지은 것이다.”<sup>11)</sup>

조선 중기의 문신인 谿谷, 張維도 인조 13년(1635)에 쓴『谿谷漫筆』에 南草가 이미 모든 사람들의 기호품이 되었으며 특히 적비(赤鼻) 치료에 효험이 크다는 중국사람 주좌(朱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태워서 연기를 들이마시곤 하는데, 많이 들이마시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나 오래도록 피운 사람들은

10) 『남초가』, 268면.

11) 李晬光, 『芝蜂類說』卷十九, 「食物」條- “淡婆姑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 採葉暴乾以火蒸之 病人用竹筒吸其煙施即噴之其煙從鼻孔出. 最能法痰濕 下氣能醒酒 今人多種之 用其效甚法 然有毒不可輕識也. 或傳 南蠻國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 故名.”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하여 지금 세상에서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백 사람이나 천 사람 중에 겨우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 지난번에 절강성(浙江省) 자계(慈溪) 출신인 중국사람 주좌(朱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중국에서는 남초(南草)를 연주(煙酒)라고도 하고 연다(煙茶)라고도 한다. 백 년 전에 벌써 민중(閩中)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세상에 두루 퍼져 있으며, 적비(赤鼻)를 치료하는 데 가장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내가 문기를 이 물건은 성질이 건조하고 열이 있어서 필시 폐(肺)를 상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코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니, 주좌가 대답하기를 응체(凝滯)된 기운을 흩뜨려서 풀어 주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그 말도 일리(一理)가 있다고 여겨진다.”<sup>12)</sup>

사람의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가 이처럼 조선시대 일부 문헌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효험을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담배에 대한 의학상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자연친화적)이나 삶의 요건들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고 또 사람마다 기질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 문헌에서 담배로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얘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 수 있다. 실제 박사형은 그의 작품 南草歌에서 언급했듯이 숙환 때문에 오랜 세월을 病苦에 시달렸다. 그러던 그가 남초로 인해 병든 몸을 완전히 치유하고 유랑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 온 감격과 회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살린 南草의 그 신이한 효험에 감탄하여 가사 南草歌를 쓴 것이다.

작가의 문집인 『淸狂集』을 보면 박사형이 32세 이후에 쓴 글에는 자신이 앓았던 질병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결국 완치되어 재발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南草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靈草가 되어 재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감격적인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남초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남초의 신이한 효험을 南

12) 張維, ‘南靈草吸煙’ 『谿谷漫筆』, 1권, “人未嘗茹服 但燒煙吸之 吸多則亦令人暈倒 久服者不必然 世之不服者 僅僅千百之一耳 頃見華人朱佐 浙江慈溪人也 言中國稱 南草爲煙酒 或稱煙茶 百年前閩中已有之 今則幾遍天下 治赤鼻最有效 余問此物燥熱 必傷肺 何能治鼻 朱曰 能散滯氣故耳 其言亦有理.”

草歌를 통해 영원히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赤城 밝은 날에 흰 안개 훑나는 듯  
平生에 興味없어 世味를 모르더니  
이 풀 얻은 後에 憂患을 잊으리라.”<sup>13)</sup>

박사형은 오랜 숙환을 남초를 통해 완전 치유하였다. 그가 떠돌며 병고에 신음했던 10여년의 세월은 그에게 있어 참담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다. 삶에 대한 의미와 흥미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 최대의 암흑기였다. 그러나 천행으로 남초를 만나게 되고 남초를 통해서 10년 숙환을 말끔히 떨쳐내니 어둠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때서야 그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남초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사는 맛을 느끼게 해 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사물이 된 것이다.

남초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호품, 그리고 특수작물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南草歌는 당시에 유행했던 담배에 대한 단순한 예찬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했던 절망적 상황에서 남초로 인해 새 삶을 얻게 된 작가의 현실적, 실증적 체험의 기록이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희망의 노래, 삶의 노래라는 점에서 독자가 갖는 문학적,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2) 무병장수한 삶을 통한 理想世界의 구현

신병에 백약이 무효했던 박사형은 남초를 재배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10년 숙환의 고질병을 말끔히 완치하였다. 따라서 南草는 그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가져다준 靈草, 靈藥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그런 生命草와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남초의 효험을 경험한 박사형은 무엇보다 먼저 임금께 남초를 진상하고자 했다. 남초의 효험이 두루 미

---

13) 「남초가」, 269면.

치어 임금께서 질병없이 오래도록 千歲萬歲 太平烟月을 구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九天에 날아올라 閻闔門 들이 날아  
玉皇께 進上하면 香案에 놓아보고  
우리東皇 賞給하야 千千萬萬歲를  
거의 疾病없으실까 그제야 太平烟月에  
壽民丹을 삼으리라.”<sup>14)</sup>

이 대목서 작자 박사형은 남초를 직접 임금께 바치지 아니하고 옥황상제께 먼저 진상한 후 옥황상제로 하여금 임금에게 상급토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南草가 不死草와 같은 신비로운 靈藥이라고 여겼기에 작자가 의도적으로 그 격(格)을 맞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작자는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남초를 통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그 수민단(壽民丹)을 삼고자 하는 것에서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풍모와 애민의식을 아울러 살필 수 있게 된다.

작자 박사형이 비록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임금에 대한 그의 충효지성은 참으로 지극하였다. 南草歌가 나오기 7年 前인 그의 나이 25세 되던 효종 10년(1659), 기해년에 효종이 승하하자 박사형은 이를 크게 슬퍼하고 매일 밤중이면 북두칠성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도 크게 통곡하였다.<sup>15)</sup> 또한 현종6년(1665), 그의 나이 31세때 임금의 大駕가 온양으로 행차하자 그는 病中에도 衣冠을 정제하고 임금계신 서쪽을 향하여 배례를 하고 꿇어앉아 詩經의 天保詩를 외우며 현종임금의 장수를 송축<sup>16)</sup>하기도 하였다.

14) 「남초가」, 269면.

15) 앞의 책, ‘淸狂子年譜’, 7면, “三十二年己亥先生二十五歲國哀每中夜稽頭北辰失聲慟哭.”

16) 앞의 책, ‘淸狂子年譜’, 7면, “大駕巡溫陽燕文武臣僚先生乃於病中整衣巾西向拜跪頌天保詩.”

“그의 나이 40세 되던 갑인년(1674)에 현종 임금에 승하하니 거친 마 포옷과 두건을 지어입고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였으며, 대행대비(현종왕 비) 승하시에도 장막을 치고 7일간 주야로 통곡을 그치지 않는 등 매번 국상 때를 만나면 부모를 잃은 슬픔과 같이 애통해 하니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을 향한 義가 비록 賢人이라도 그보다 더할 수 없었다”.<sup>17)</sup>

박사형이 남초가를 지은 해가 현종 7년(丙午:1666), 그의 나이 32세 때이다. 그는 이미 천추의 한이 되어버린 다섯 가족을 잃고 그것이 골수의 병이 되어 오랜 癩疾로 신음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임금이나 백성이나 무병장수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였기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절실하고 간절했을 것이다. 작자가 옥황상제로 하여금 임금께 남초를 상급케 하여 千萬歲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남초를 백성을 장수하게 만든 靈藥으로 그 壽民丹을 삼고자 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박사형은 그의 나이 14세에 鄕試에 장원하여 십사세 문장이라 일컬을 만큼 학문과 재질이 뛰어나 少時부터 그 명성이 원근에 자자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소년이었다. 그가 순창 향시때 그 고을 아전인 薛景大의 집에 잠시 유숙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薛景大의 18세 된 여식이 남몰래 그를 흠모하고 마침내 想思로 득병하여 위급지경에 이르니 뒤 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친 설경대의 요청으로 급히 순창을 방문하였으나 그녀는 박사형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1년 후 박사형은 서울 과거를 하루 앞두고 꿈 속에서 죽은 설 여인이 쓴 혈서를 보았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말 한마디도 건네 보지 못하고 홀로 想思를 하다 세상을 떠난 설 여인을 생각하며 스스로 자책하였다.

“이 꿈은 필연코 그 설(薛) 여인의 원통한 넋이 작용한 것이니 내가 비록 그 설(薛) 여인을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설(薛) 여인은 나로 인하여 죽었으니

17) 앞의 책, ‘清狂子年譜’, 35면, “每遭國哀以羸熟麻衣巾稽顙北辰失聲慟哭尤切侍衛之臣見者流涕曰公孝親忠君之義雖古賢者無以過此說.”

대장부 사나이의 앞길이 어찌면 하나같이 운명을 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sup>18)</sup>

박사형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고 결국 科場에 나가지 아니하고 즉시 낙향하여 林泉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爲己之學과 후진양성으로 일생을 마쳤다. 어린 나이에 14세 문장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는 자기를 흠모했던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입신양명의 출세 길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꿈에 본 시골 兒女로 인한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꺼져버린 사실에 대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을 그 무엇보다 가치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작자였기에 그의 이러한 결정은 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박사형은 그의 南草歌가 나오기 이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잃었다. 아내를 비롯 부모, 형, 조모까지 질병으로 한꺼번에 가족 모두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비록 宦路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儒者로서 스스로 忠義를 다짐했던 효종임금도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승하하니 그 슬픔이 부모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더욱이 박사형 자신도 10년 숙환의 고질병에서 신음하다 南草를 만나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무병장수한 삶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의 삶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가 32세에 지은 南草歌는 바로 이러한 그의 인생과 염원을 담고 있다.

“香山에 네 닳던 들 瓊液酒를 부러보라  
清風이 生腋하니 羽化術을 배워난듯  
三神山 碧桃를 爽快타 하건마는  
弱水 삼천리에 어느神仙 보낼소나  
安期生 火棗를 仙藥이라 한들  
三千年 여는 열매 어디가 얻을소나  
蓬萊方丈 第一峯에 不死草 있다하되

18) 앞의 책, ‘淸狂子年譜’, 6면, “自訟曰此必薛女之冤氣所我雖不殺薛女而薛女由我而死丈夫前程一何多魔也之所命我將奈何.”

童男童女 나간 後에 바라되 아니온다.  
秦皇이 너를보면 一定리가 여기리라.”<sup>19)</sup>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그 억압된 현실을 떠나 잠깐만이라도 모든 것이 자유롭고 환한 고통과 질곡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 즉 이상 세계를 꿈꾼다. 南草歌의 작자인 박사형 역시 그러한 현실의 질곡에서 남초를 통해 이상향 찾은 것이다. 그는 남초를 인간세계의 神異한 靈藥으로 여겼으며, 이를 신선세계의 瓊液酒, 三神山 碧桃, 安期生の 火棗, 蓬萊方丈 第一峯의 不死不老草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세계의 술이나 과일, 불사불노초는 남초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되며 어쩌면 영원히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초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靈草, 靈藥인 것이다. 童男童女 5백인을 三神山上에 보내 不死草를 구하려 했던 秦皇이 南草를 미리 알았다더라면 결코 이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박사형이 남초를 신선세계의 仙藥이라 한 것은 무병장수한 인간의 삶을 인간세계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南草歌는 바로 이러한 작가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하고 있다.

### 3. 南草歌의 문학적 의미

박사형의 南草歌는 조선시대 南草(담배)를 소재로 한 가사로는 그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일반 사대부의 가사가 그 소재에서부터 품위와 격(格)이 있는 것을 취하여 이상적인 표현을 즐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

19) 『남초가』, 269면.

南草歌는 일상적 사물에 불과한 남초를 소재로 이에 대한 감회를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시대 詩歌史上 가장 독특하고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한문표기에서 벗어나 국한문혼용체를 취하여 보다 쉽고 현장감 있는 사실적 묘사를 이루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이 갖는 큰 문학적 장점이 아닐 수 없다.

“ 靑樓 밝은 달에 그리던 님 만나보니  
 芙蓉帳 적막한데 온갖 辭緣 다하면서  
 沈香 가는 刀磨 燈臺 앞에 내어놓고  
 銀粧刀 드는 날로 잎잎이 썬는 양은  
 廣寒殿 玉梧邊의 가문서리 뿌리는 듯  
 朱紅潰 내어놓고 銀竹을 훌리잡아  
 纖纖玉手로 던지시 담는 양은  
 鶴上仙人이 白玉笛을 빗겨온 듯  
 金爐에 묻은 불을 銀箸로 집어내어  
 丹脣皓齒로 가는 내 품는 양은  
 赤城 밝은 달에 흰 안개 훑나는 듯.”<sup>20)</sup>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박사형은 남초의 효능에 관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비유적 표현을 통한 작품의 멋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재배한 남초를 흡연하기까지의 과정을 여성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운 수사와 함께 섬세하고 진솔하게 표현하여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크게 제고하였다.

작자 박사형은 남초를 통해 숙병을 치료하고 새 삶을 찾았다. 따라서 남초는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神異한 靈藥이며 活命草였다. 그가 남초의 흡연과정을 이처럼 멋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몸이 貧賤하야 草野에 묻혔으니

20) 『남초가』, 268~269면.

藜藿羹을 못 면하되 葵藿枕은 혼자 있어  
 너 같은 맛을 보니 獻芹誠이 보야날제  
 兩腋에 깃을 돌려 九天에 날아 올라  
 閭闔門 들이 날아 玉皇께 進上하면  
 香案에 놓아보고 우리東皇 賞給하야  
 千千萬萬歲를 거의 疾病없으실까  
 그제야 太平烟月에 壽民丹을 삼으리라.”<sup>21)</sup>

박사형은 남초가에서 남초를 통해 그가 추구한 이상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임금을 비롯 모든 백성이 태평한 시대를 맞아 천만세 무병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의 소재인 남초는 단순한 일상적 사물의 차원을 넘어 가사 「남초가」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작가 박사형의 탁월한 문학적 감각과 그 예술적 정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4. 맺는 말

淸狂子 박사형의 南草歌는 남초(담배)라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또 기호품으로서 남초에 대한 작가의 예찬을 담은 노래가 아니다. 백악이 무효했던 10년 숙환의 죽음에 직면한 절망적 상황에서 남초로 인해 새 삶을 얻게 된 작가 박사형의 실증적 체험을 노래한 작품이다. 일상적 사물에 불과한 남초가 그의 인생에 生命草가 되었으며 이를 소재로 예술적 감각으로 그의 삶과 인생을 표현하였다. 또한 南草의 효험이 단순히 작가 스스로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임금을 비롯 온 백성에게 두루 미치어 무병장수하는 태평연월의 壽民丹이 되게 하고 싶다는 작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 박사형이 남초를 신선세계의 不死草와 같은 仙藥이라 여긴 것

21) 「남초가」, 269면.

은 무병장수한 인간의 삶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의 기본질서인 충효와 함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신선세계와 같은 인간세계의 이상향으로 여긴 것이다. 남초가는 그 표현에 있어서도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사실적 묘사를 취하고 있으며, 南草라는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삼아 그 예술적 정취와 함께 뛰어난 가사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은 그의 문학에 있어 최대의 장점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朴士亨, 『國譯清狂集』, 보성문화원, 2004.
- 李晬光, 『芝蜂類說』, 卷十九
- 李裕元, 『林下筆記』, 제13권.
- 張維, 『谿谷漫筆』, 1권.
- 김정식, 「가사의 소재적 특이성에 대한 일고찰」, 『우리어문연구』, 20권, 우리문학회, 2003.
- 정익섭, 「清狂子 朴士亨의 南草歌攷」, 『장암지헌영선생회갑기념논총』, 호 서문화사, 1971.

【Abstracts】

A Study of Chung Kwang Ja,  
Park Sa Hyung's 「Namchoga」

- Writer's creative background and around the literary sense

Kim Kuy-suck

Park Sa Hyung's 「Namchoga」 during the Joseon Dynasty, (cigarette) lyrics include the work of the first. Everyday symbol of objects to lyrics as a great literary material features of life and his artistic atmosphere of deep anguish off to advantage. Work as well. Rather than just a cigarette for the cult of going namcho namcho disease deaths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the empirical and practical experience of the writers get a new life. To have this work because it is made based on real meaning is big. The writer namcho found utopia through a fresh world, and it will soon not of filial piety's life, a transcription of a human life, based on respect of life. See the ideals of the author and in implementing the human world from the 「Namchoga」 .

Key words : Namcho, literary materials, artistic atmosphere, practical experience, Utopia.

이 논문은 2017년 6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